Killing Fields(虐殺現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돈 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가 보기를 권하는 곳이 "Tue Sleng Museum'이라고 한다. 프놈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이곳으로 온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일행과 프놈펜 대학의 약학대학 학장 그리고 복지부 차관 등과 같이 한 저녁 만찬에서 마신 숙취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일행은 'Tue Sleng Museum'을 찾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 시골 초등학교 건물과 유사하게 운동장을 앞에 두고 4 동(4棟)으로 된 규모의 건물에 이르러 이것이 '박물관'이라고 하니 약간은 기대에 어긋나는 듯 하였다. 이 건물의 정문에서 팔·다리가 절단된 상이용사(傷痍勇士)인 듯 싶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가 환영하는 듯이 손을 내 밀기에 전상자에 대한 동정심이 앞서서인지 필자도 모르게 1불 짜리 지폐를 한 장 건네 주었는데 너도나도 몰려들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동행한 국보 캄보디아 여행사 직원인 김일용씨 왈 "이 나라 공무원 봉급이 월 30불 정도이므로 전상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동정으로 던져 주는 1불이 모이면 공무원 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되므로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정상적인 직업을 택하지 않고 이 곳에서 구걸행위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동정한 1불이 공연히 계면쩍게 느껴졌다. 이 건물은 원래 리세(학교)였으나 감옥으로 개조한 후에 폴포트 정권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하고 고문하여 처형한 곳으로 처형된 사람만도 14,500명을 헤아리고 이중에는 2000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총 4동으로 건물 좌측에 있는 첫 교실에는 철제 침대 하나와 족쇄 그리고 용변기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감옥의 독방으로 전 정권인 롤놀 정권의 고급 장교나 고관이 수용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13세기까지 번창하였던 크메르 제국이 주변국가의 압력에 지배당하기 시작하여 1863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아시안 게임을 주최할 정도로 중립국으로 성장했다가 베트남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친미파인 롤놀의 쿠데타로 1970년에 정권을 탈취 당하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다 공산교육에 심취한 폴포트가 롤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 정권을 쟁취하자 전국에 공포 정치를 펼쳐 동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공산주의 특유의 숙청이 시작되었다(1975년). 이때 도시주민은 농촌으로 연행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켰고 롤놀파의 지식인, 기술자,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숙청대상이 되었는데 1979년 친 베트남파인 헨삼 정권이 들어 설 때까지 전국민의 1/3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독방으로 된 몇 개의 교실을 지나 특별히 고안된 의자가 놓여 있는 고문실로 안내되었다. 의자에 양손을 묶고, 머리를 고정한 후, 옛날 축음기 태엽을 감던 기계와 비슷한 장치를 돌리면 머리 뒤에서 예리한 송곳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후두골을 뚫고 뇌속으로 들어가, 고문을 받던 사람이 서서히 죽어 가게하는 장치였다. 벽에 전시된 그림에는 캄보디아 여인이 이러한 고문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문명화된 이 사회에 동족간에 이렇게 처참한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시장에는 브로크로 된 좁은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다. 24시간 계속 부동자세로 세워 놓은 이 고문은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고안한 것으로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문에 사용한 기구, 희생자의 유품, 투옥 당시와 처형 후에 촬영된 무수한 희생자들의 사진, 고문과 처형을 묘사한 그림이 전시된 교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일 끝번 교실 벽에 걸린 대형 캄보디아 지도였다. 그 지도는 희생자들의 해골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언젠가 보았던 죤 허트필드의 작품 '파시즘의 영광에 비쳐진 기념비'에서 사람의 해골을 경사지게 쌓아 올린 것! 그것을 방불(彷彿)케 하는 것이었다. 만일 필자에게 이 전시된 캄보디아 지도의 제목을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폴포트의 영광에 비쳐진 기념비'라고 했을 것이다.

운동장에는 높은 철봉대에 양손과 양다리를 뒤로 묶어 매달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된 철봉대 밑에 물독을 놓아 머리가 물속으로 잠기도록 하는 고문 시설이 전시되고 있었다.

일제때 일본의 고등계 형사들이 과거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던 것과 유사한 점도 있었고, 어떤 것은 혹독하기가 비할 데 없는 장면도 있었지만, 同族相爭(동족상쟁)의 悲劇(비극)은 항상 弱少民族(약소민족)의 專有物(전유물)인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예정지를 향해 차를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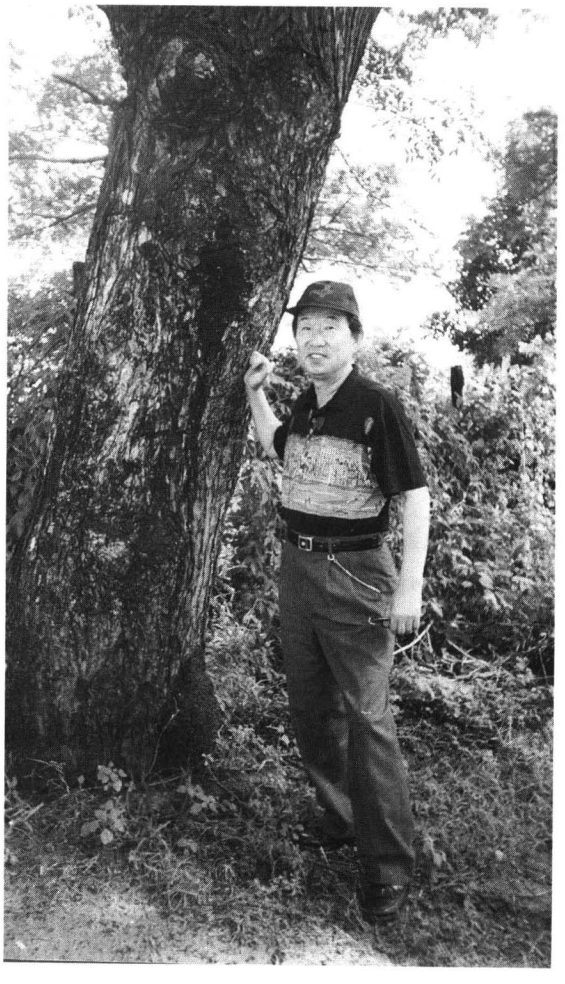
프놈펜 시에서 포캄보란 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15km정도 달리어 도착한 곳이 초엥액! 여기가 바로 폴포트 정권의 악명 높았던 처형 현장이고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던 영화 '킬링 필드(Killing Field)'의 촬영 현장이기도 하다.

정문에서 우측으로 조금 들어가 세워져 있는 게시판에는 호주 신문기자의 사진과 설명문이 있었는데, 이 기자가 바로 처형 현장의 참혹성을 세계에 알린 장본인이라고 한다. 여기 저기 파헤쳐진 집단 무덤(수백명을 한 무덤에 매장)에는 아직도 찢어진 옷가지들이 널려져 있고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습지대는 우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고여 있는 물이 마치 호수처럼 보였다.

처형은 하였지만 목숨이 끊기지 않았거나 어린이들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그네 타는 식으로 앞뒤로 밀어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두 번, 세 번 죽게 하였다는 나무에는 아직도 처형자들의 피가 얼룩져 있었다. 天人 共怒(천인공노)할 일! 이 나무 옆에서 기념 사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知識人(지식인)과 宗教人(종교인)을 가장 殘忍(잔인)한 방법으로 처단하고, 외국어를 알고 있거나 안경을 쓴 사람, 손바닥에 못이 배기지 않은 브르조아,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모두 처단하였는데 이렇게 무고한 양민을 폴포트는 집권 4년동안에 100~150만명 이상 살해하였음에도 밀림 속에는 아직도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군이 40,000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학살자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군에 가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봉급이 정부군의 2배가 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원은 크메르 루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보석 광산이 많은 곳이고 아편을 재배하는 곳이 많아 이것을 채광, 채집하여 태국에 밀수출하여 얻어 지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에 밀려 태국이 아편이나 보석을 매입하지 않게 되자 판로가 끊긴 크메르 루즈 군이 채굴된 보석을 갖고 정부군에 투항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초엥액 학살현장에서 가장 印象的(인상적)인 것은 處刑(처형)된 良民(양민)들의 遺骨(유골) 중 骸骨(해골)만을 모아 삼각형의 높은 유리 피라미드에 쌓아 올린 納骨堂(납골당)이었다. 이것을 또 하나의 '폴포트의 榮光에 비쳐진 記念碑'라고 이름 짓고 싶었다. 폴포트 정권의 잔학상이 다시는 이나라에 재현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프놈펜 시내로 발길을 돌렸다.



처형 때에 이용되어 핏자국이 남아있는 나무임.